

한-스페인,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협력확대!

- 특허청, 스페인 특허상표청과 청장회담 개최(3.6.) -
-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 협력 확대 반영 포괄협력 업무협약(MOU) 개정 합의 -

중소기업 지원 정책 분야를 포함한 한-스페인 간 지식재산분야 협력이 가속화된다. 또한,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양 청간 지식재산 분야 포괄 협력 업무협약(MOU) 갱신도 추진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3월 6일(목) 오전 11시(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엘리사 로드리게스 오르티스(Elisa Rodríguez Ortiz) 스페인 특허상표청(Sp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PTO) 청장과 청장회담을 갖고,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분야 지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방향 등을 제시하는 특허로 R&D,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IP 금융 등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글로벌 지식재산 학습 콘텐츠인 ‘IP 파노라마 2.0’*의 스페인어 개발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202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예정인 이베로아메리카** 지식재산 프로그램(Ibero-America Industrial Property Program) 회의에서 동 콘텐츠 발표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다.

* 특허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개발한 글로벌 지식재산 학습 콘텐츠

** 스페인, 포르투갈, 라틴아메리카 등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24개 국가의 공동체

양청은 이번 청장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체결된 양청 간 포괄협력 업무협약(MOU)을 개정하여, 그간의 지식재산 분야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IP 금융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등 협력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포괄협력 업무협약(MOU) 갱신 체결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12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한-스페인 청장회담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하였다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중남미 국가로 진출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인 스페인과 지재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한-스페인 특허청장 회담 관련 사진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이승관 (042-481-5063)
		담당자	사무관	윤지영 (042-481-5008)



사진 1 :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이 3월 6일(목) 엘리사 로드리게스 오르티스 (Elisa Rodríguez Ortiz) 스페인 특허상표청(SPTO) 청장(오른쪽)과 청장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2 : 김완기 특허청장(왼쪽에서 4번째)이 3월 6일(목) 엘리사 로드리게스 오르티스(Elisa Rodríguez Ortiz) 스페인 특허상표청 (SPTO) 청장(왼쪽에서 6번째)과 청장회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3 : 김완기 특허청장(오른쪽에서 3번째)이 3월 6일(목) 엘리사 로드리게스 오르티스(Elisa Rodríguez Ortiz) 스페인 특허상표청(SPTO) 청장(왼쪽에서 3번째)과 청장회담을 하고 있다.